

한의학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

손인철^{1,2,3} · 김재효^{1,2,3}

¹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²한국전통의학연구소, ³마음인문학연구소

A Comprehension of Life in Korean Medicine

In Chul Sohn^{1,2,3}, Jaehyo Kim^{1,2,3}

¹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²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³The Institute of Mind Humanities,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 Definition of Life has led an identity and advancement in the knowledge system of science including biomedicine. The world welcomes the new paradigm about the integrative medicine throughout West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co-exists so far. **Methods :** Thus this study has comprised how Life was interpreted in Korean Medical history. To reach the purpose, various data and documents about Life subjected to the medical field was collected from medical textbooks and chapters presented in ancient Korean Medicine. **Results :** Most of important issue is Life as the key even though there are many opinions and conflicts in the view of Life between Western and Korean medical culture. As a result it is not different in the concept of Life each other except for speaking differently same as using the different languages. Integrative Medicine has accepted that it emphasizes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between practitioner and patient, is informed by evidence, and makes use of all appropriate therapies. Integrative Medicine declares to be a kind of medicine if vary medical system can focus on human being. **Conclusions :** Since Korean Medicine was early therapeutic medical categories developed based on Dao, Korean Medicine have to focus on mind and body interactive relationship and attribute to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in the future.

Key words : life, Korean Medicine, Western Medicine, Integrative Medicine

서 론

사람은 천지의 기운인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의 화합과 부모의 정기 곧 부정(父精)과 모혈(母血)을 받아 잉태(孕胎)되고, 10개월 뒤에 태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생명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인체와 그로부터 발현되는 생명현상을 탐구하며 온전한 생명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학의 원전이라 하는 『黃帝內經』(1)에서는 “만물가운데 가장 귀한 것

은 인간의 생명이다.” 하였고, 사람은 천지(天地)의 기(氣)에 의해서 탄생하고, 사계절이 변화하는 법칙에 의해 발육 성장하는 데, 그 가운데 생명의 탄생과정에서 작용하는 기(氣)의 조화를 “사람은 땅에서 생(生)하고, 명(命)은 하늘에 달렸으니, 천지의 기(氣)가 합하여 생긴 생명을 사람이라 한다.”고 하여 인간의 귀한 생명이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생명에 대한 논의는 각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보통 종교가, 문화가, 철학자, 의사, 생물학자 등은 각기 그 분야의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말을 중요시하고 연구의 중심 개념에 둔다. 『북사(北史)』에서는 “인간

Received March 5, 2013, Revised March 18, 2013, Accepted March 18, 2013

Corresponding author: In Chul Sohn

Departmen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344-2 Sinyong-dong, Iksan 570-749, Korea
Tel: +82-63-850-6448, Fax: +82-63-857-6458, E-mail: ichsohn@wku.ac.kr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NRF-2010-361-A00008).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생명(人之所寶 莫寶于生命)⁽²⁾이라 한다 하였고, 『생물학』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代謝를 하고, 恒常性을 유지하며, 성장발육하고, 자극에 대해 반응을 하며, 生殖을 하는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발현하는 생명체의 특성을 생명”이라고 한다. 『한 올안 한 이치』⁽³⁾에서는 “생명에 대한 네 가지 견해가 있으니 하나는, 재산이나 명예나 권리를 생명으로 이는 사람이 있고, 둘은, 목숨을 생명으로 이는 사람이 있으며, 셋은, 의(義)를 생명으로 이는 사람이 있고, 넷은, 도(道)를 생명으로 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사람에 따라 생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고 하였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그 학문의 정체성이요, 지향하는 바라고 본다. 세상이 크게 열려가면서 의학도 과거 동서의학의 울을 벗어나 통합의학⁽⁴⁾, 일원의학⁽⁵⁾을 추구하고 있는 외부의 흐름을 보면서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꼈다.

본 부분에서는 의학의 주체가 되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의학 역대 문헌에서의 생명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한의학에서 본 생명론

1. 인체 생명은 ‘천지자연과 서로 상응’하는 천인상응(天人相應) 관계이다

천인상응(天人相應)이란 자연계와 인간의 상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의학의 기본개념이다. 사람과 천지자연이 모두 기(氣)에서 생겼으며, 모두 陰陽五行의 지배를 받아 천지자연과 사람이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천지상응사상이다. 천지(天地)는 자연계를 대표하며 ‘상응(相應)’이란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 인체는 반드시 자연계에 상응하는 반응을 일으킴을 가

리킨 것이다. 자연을 天이라 하여, 天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조화의 관계로 생각한 동양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는 상통한다.

『영추(靈樞)』 「사객(邪客)」⁽⁶⁾에서는 황제(黃帝)와 그의 신하 백고(伯高)의 문답 얘기가 있다. “인체의 사지 관절이 천지자연과 어떻게 상응(相應)하는가” 하는 물음에, 신하 백고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난 것이니, 사람의 머리가 둥글고 발은 모난 것으로써 상응한다(天圓地方 人頭圓足方 以應之).”라 하면서, “인체와 천지는 상응하는 것이다(人與天地相應者也)”고 하여 인체와 천지자연의 상응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늘은 둥글고 땅이 모가 났으니, 사람의 머리가 둥글고 발이 모난 것으로써 상응한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땅에는 구주(九州)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구구(九竅)가 있다. 하늘에는 풍우(風雨)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희로(喜怒)가 있다. 하늘에는 뇌전(雷電)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음성(音聲)이 있다. 하늘에는 사시(四時)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사지(四肢)가 있다. 하늘에는 오음(五音)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오장(五臟)이 있다. 하늘에는 육률(六律)이 있으니 사람에게는 육부(六腑)가 있다. 하늘에는 동하(冬夏)가 있으니 사람에게는 한열(寒熱)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변화(變化)에 잘 적응하여야 한다. 천지의 기(氣)가 모이면 생명을 담은 형체를 이루고 이 기(氣)가 흩어져 형체가 없어지면 생명도 사라진다. 즉, 기(氣)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生命力)과 형체(形體)를 이루는 모든 것이다. 이러한 기(氣)의 취산(聚散)과 성쇠(盛衰)는 五行의 작용을 통해 일어나고, 陰陽을 통해 드러난다.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陰陽五行의 이치에 따라 태어나 살아가고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는 인체의 장부와 자연 사이의 연계 및 작용에 관한 사상과 각 장부의 기능이 서로 연계를 이루어 작용하는 천인상응의 整體觀이 담겨 있다.

2. 생명은 변화한다

생명의 기본적인 특징은 “恒動不止” 하는 것이다. “恒動”은 모든 생명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생명과정중의 행동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혼란스러우면서도 불규칙한 恒動도 아니며, 生長壯老

(1) 『黃帝內經』 『素問』 「寶命全形論」.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

(2) 북사(北史)의 열전(列傳) 제16에 나오는 말임. 북사는 중국 당(唐)의 이연수(李延壽)가 편찬한 사서(史書)로, 기전체(紀傳體)로 북위(北魏), 서위(西魏), 동위(東魏), 북주(北周), 북제(北齊), 수(隋) 등 남북조시대 북조(北朝)의 여섯 왕조의 역사를 기술한 중국 25사(二十五史) 가운데 하나이다.

(3) 『한 올안 한 이치』 제1편 법문(法門)과 일화(逸話). 마음공부 31절.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법문집. 박정훈 편저로 원불교 출판사에서 2004년에 출판.

(4) 이태형. 전통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통합의학’. 민족의학신문 857호. 2012(06.07).

(5) 김재효, 손인철, 강연석. 마음치유 모델로서의 일원의학에 대한 검토. 『원불교 사상과 종교문화』 49집. 원불교 사상연구원. 2011 : 49-82.

(6) 『黃帝內經』 『靈樞』 「邪客 第七十一」. 서울 : 의성당. 2002 : 1211-3.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藏 天有六律 人有六腑 天有冬夏 人有寒熱 天有十日 人有十指 辰有十二 人有足十指 莖垂以應之 女子不足二節 以抱人形 天有陰陽 人有夫妻.”

已의 과정에서 “生剋勝復”의 기본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은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대략적으로 생·장·장·노·사(生長壯老死)의 단계를 거친다.

『靈樞』「天年」(7)에서는 10년을 단위로 건강한 인체의 발전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人生十歲，五藏始定，血氣已通，其氣在下，故好走。二十歲，血氣始盛，肌肉方長，故好趨。三十歲，五藏大定，肌肉堅固，血氣盛滿，故好步。四十歲，五藏六府十二經脈，皆大盛以平定，腠理始疏，榮華頹落，髮頰斑白，平盛不搖，故好坐。五十歲，肝氣始衰，肝葉始薄，膽汁始減，目始不明。六十歲，心氣始衰，苦憂悲，血氣懈惰，故好臥。七十歲，脾氣虛，皮膚枯。八十歲，肺氣衰，魄離，故言善悞。九十歲，腎氣焦，四藏經脈空虛。百歲，五藏皆虛，神氣皆去，形骸獨居而終矣。

인체의 생장 발육의 시기인 10대와 20대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시작하며 근육이 발달하여, 성장 발달 상태에 있고, 장년기가 접어드는 30대와 40대에는 五臟이 크게 안정되고 근육이 견고해지며 혈액이 충만해지고, 五臟, 六腑, 十二經脈이 모두 크게 왕성하여 안정된다’고 한 것처럼 인체의 기능과 정력이 가장 왕성하지만, 40세를 전후하여 ‘腠理가 성글어지기 시작하고 화색이 점차 쇠약한다’고 한 것처럼 몸을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하면 그 기능이 점차 쇠약하는 징조가 나타난다. 50세가 되면 ‘肝氣가 쇠하기 시작’하면서 인체의 노화가 가속화되고, 곧 노년기가 시작된다. 나이가 육십이 넘어가면서 心氣가 쇠하기 시작하여, ‘칠십 세가 되면 인체의 中焦인 脾氣가 虛하며 피부가 마른다.’고 하였다. 80, 90세 이후에는 인체가 매우 약해져 손발이 부자유한 상태에 있으면서 뇌신경 또한 약해져서 ‘언어가 부자연스럽고, 인체 주요 장부의 기능이 모두 虛하여 神氣가 모두 빠져나가 몸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명을 다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養生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변화를 거슬릴 수는 없을 것이다.

張介賓은 『類經圖翼』(8)에서 “太極이 動靜하면 陰陽이 나뉘어지고, 陰陽淸濁이 있으면 老少로써 四象이 나뉘어지며 動靜의 기미와 陰陽의 변화로 말미암아 五行이 나뉘어 진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를 통해 四象과 五行의 개념적 母體인 陰陽은 太極의 테두리에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모든 철학적 개념들은 太極의 범주속에서 하나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太極에는 宇宙, 自然에 내재된 원리 즉 天地萬物은 순환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한다는 恒動性의 원리, 그리고 이러한 순환 속에 동참한 모든 것들은 서로 깊은 통일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整體

性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다.

3. 생명은 兩精이 相搏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새 생명을 부모의 精이 만나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관하여 『靈樞』「本神」(9)에서 “生의 근원을 精이라 하고, 兩精이 서로 만나 神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楊上善(10)은 “남녀의 두 神이 서로 만나 하나의 形을 이루는데,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것을 精이라 한다”고 주석하였다.

雌雄兩神相搏，共成一形，先我身生，故謂之精也。

張介賓(11)은 “兩精은 陰陽의 精이다. ‘搏’은 서로 결합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의 가가 합해야 하므로, 부모의 精, 즉 兩精이 相搏하여 形神이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兩精者，陰陽之精也。搏，交結也。... 人之生也，必合陰陽之氣，媾父母之精，兩精相搏，形神乃成

한의학에서는 “영아 초기에 먼저 兩腎이 생기는데, 몸이 있기 전에 兩腎이 먼저 생긴다(12)”고 하였고, 腎은 藏精을 주관하고, 腎精은 인체의 생장, 발육 및 생식의 물질적인 기초이므로 “선천의 근본은 腎에 있다(13)”고 하면서, 각종 선천적인 인자로 인해 발생한 병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한의학은 腎을 강조하였다. 부모 생식의 과정 임신과 분만과정의 정상여부는 새로운 생명의 선천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비록 유전이라든가 유전자라는 술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그와 유사한 이해를 하고 있다.

4. 생명의 근본을 원기(元氣)라고 하였다

원기는 극도로 정밀한 물질임과 동시에 운동하고 변화하는 생명력 곧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생명의 근본이 된다. 세상을 원자(原子)의 구성으로 보는 서양의 원자론적 자연관과는 대응되는 것으로, 원기론은 세계의 근본을 원기로 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기(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은 元氣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원기론은 우주의 자연현상을 인식함에 있어서 세계를 형성하는

(9) 위의 책 「天年 第五十四」: 1004-6.

(10) 楊上善 選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5: 128. “雌雄兩神相搏，共成一形，先我身生，故謂之精也”.

(11) 張介賓. 類經 評注. 西安: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96: 52-3. “兩精者，陰陽之精也。搏，交結也。... 人之生也，必合陰陽之氣，媾父母之精，兩精相搏，形神乃成”.

(12)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9. “嬰兒初生先兩腎，未有此身，先有兩腎”.

(13) 위의 책: 9. “先天之本在腎”

(7) 위의 책 「天年 第五十四」: 1004-6.

(8) 張介賓. 類經圖翼. 臺北 旋風出版社. 1973(62): 2.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기(氣)로서 파악하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의 방식이다. 생명현상을 기(氣)의 나타남으로 보는 관점이다.

천하는 하나의 기로 통할 뿐이다(通天下—氣耳)⁽¹⁴⁾.

만물의 기(氣)가 처음 시작 할 때에 생화(生化)작용이 있고, 그 기가 점차 확산되어 일정한 형태를 이루며, 기가 퍼지면서 발육하고 생식하고, 기화(氣化)가 그치면 물체에도 변화가 발생하니 이러한 과정은 모든 생명이 같은 것이다⁽¹⁵⁾.

몸으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특성에는 분명한 이중성 또는 양면성이 있다. 이러한 생명의 단위를 설명 할 때 서양의학은 세포의 기본단위로 원자(原子)를 들고, 동양의학에서는 원기(原氣)라는 말에서 유기체의 특성을 확인한다. 여기서의 원자(原子)는 생명을 이루는 기본 입자(粒子)의 구조를 의미하고, 원기(元氣-原氣)는 인체의 생명현상 바로 그 자체로서 생명력의 기본이요, 전체의 뜻이 있다. 이 원기는 우주에 가득 차 있고, 그 운동에 순서가 있어서, 무궁무진한 변화로 연속하여 끊임이 없고, 음양이 대립 통일하여 모이면 형상을 이루고 흩어지면 형상이 없어진다.

元氣論에 근거한 한의학(韓醫學)은 기의학(氣醫學)이라 할 수 있다⁽¹⁶⁾. 물론 기(氣)라는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한 범주의 철학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의학 학문영역에서의 기(氣)는 현재적 의미의 생체에너지 내지는 생명현상의 본질로 간주되고 있다. 기(氣)를 어떤 형체를 가진 물질로 보지 않고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발현시키는 작용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체는 다양한 기(氣)의 작용으로 운행되어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素問』 「寶命全形論」⁽¹⁷⁾에서는 “사람은 천지의 기(氣)에 의존하여 태어나고, 사시변화(四時變化)의 규율에 순응하면서 생활한다(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고 하였고, “천지의 기(氣)가 합하여 태어난 생명을 사람이라 한다(天地合氣, 命之曰人)”고 하여 인간은 천지의 기(氣)가 합하여 태어나며, 천지의 기(氣)는 인체를 생성 발육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 됨을 설명하였다.

『素問』 「至真要大論」에는 “하늘에서 비롯된 것은 천기(天氣)이고, 땅에서 비롯된 것은 지기(地氣)인데, 천지(天地)의 기가 합해지면 육절(六節)⁽¹⁸⁾로 나뉘어져 만물이 화생한다.”고 하였고, 『難經』 「八難」에서는 “기(氣)는 인체의 근본이다(氣者 人之根本也).”⁽¹⁹⁾

라고 하였다. 『莊子』는 “사람의 생명은 기가 모여서 생긴 것으로,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²⁰⁾고 하였고, 『素問』 「六節藏象論」에 “하늘은 인간에게 오기(五氣)를 공급하고 땅은 오미(五味)를 공급한다. 오기(五氣)는 코로 흡입되어 심폐에 저장되며, 그 기(氣)가 상승하여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목소리를 맑게 한다. 오미(五味)는 입으로 들어가 위장에 저장되며 오미가 저장되어야 오장(五臟)의 정기(精氣)를 영양한다. 오장의 정기(精氣)와 천기(天氣)가 조화되면 진액이 생성되어 마침내 신기(神氣)가 저절로 생성된다.”⁽²¹⁾고 하여 인체는 자연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고 있으며, 그 중에 기(氣)가 생명활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였다.

5. 생명의 3요소는 정기신(精氣神)이다

정기신(精氣神)은 한의학적 생명관의 특징이다. 허준(許浚)은 그의 저서 『東醫寶鑑』 「內景篇」에서 인체 생명의 근원을 정기신(精·氣·神)의 3요소라 하였고, 정기신을 인체의 삼보(三寶)라 하여 인체의 오장육부와 육체의 구조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요소로 보았다.

한의학에서 정(精)은 인체생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근본으로 만물은 정기(精氣)로부터 태어난다고 본다.

“人之一身, 稟天地之秀氣, 而有生, 託陰陽陶鑄而成形 故一身之中 以精氣神為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真之士 若執己身而修之, 無過煉治 精氣神 三物而已”

『東醫寶鑑』 「身形篇」에서는 “사람의 몸은 천지의 수기(秀氣)를 품부(稟賦)받아 생겨나고 음양에 의탁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일신 가운데서 정기신(精氣神)이 중심이 된다. 신(神)은 기(氣)에서 나고, 기(氣)는 정(精)에서 난다. 그러므로 참된 도를 수련하는 사람이 몸을 닦는 길은 정기신(精氣神)의 단련을 벗어나지 아니한다.”⁽²²⁾고 하였다.

구선(懼仙)은 『活人心法』에서 “정(精)은 몸의 근본이 되고, 기(氣)는 신(神)을 주관하며, 형체는 정신의 집이다. 때문에 정신을 너무 쓰면 부족해지고, 정(精)을 너무 쓰면 줄어들며, 기를 너무 피로하게 하면 끊어지게(絶) 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

(14) 『莊子』 「外篇」 「知北游」 第二十二. “通天下—氣耳”

(15) 『素問』 「五常政大論」. “氣始而生化 氣散而有形 氣布而蕃育 氣終而象變 氣致一也”

(16) 안규석. 『한의학의 생명』 「氣論」 「과학사상」 36, 범양사. 2001.

(17) 『素問』 「寶命全形論」.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 “天地合氣, 命之曰人”

(18) 육절(六節) : 운기(運氣) 이론의 하나. 육절(六節)로 삼양삼음(三陰三陽) 및 육기(六氣)의 변화와 인체의 육부(六腑) 등을 헤아렸음.

(19) 『難經』 「八難」. “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原, 所謂生氣之原者, 謂十

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 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故 氣者, 人之根本也”

(20) 『莊子』 「知北游」 : “人之生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21) 『素問』 「六節藏象論」. “天食人以五氣, 地食人以五味. 五氣入鼻, 藏於心肺 上使五色修明, 音聲能彰. 五味入口, 藏於腸胃, 味有所藏, 以養五氣, 氣和而生, 津液相成, 神乃自生”

(22) 『東醫寶鑑』 「內景篇」, 悟真篇註. “人之一身, 稟天地之秀氣, 而有生, 託陰陽陶鑄而成形 故一身之中 以精氣神為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真之士 若執己身而修之, 無過煉治 精氣神 三物而已”

(氣)가 소모되면 몸도 쇠약하여 오래 살 수 없게 된다. 대체로 있는 것(有)은 없는데(無)에서 생기고, 형체는 정신이 있어야 유지된다.”(23)라고 하여 ‘정기신을 잘 보양(保養)하면 생명을 오래 보존케 한다.’고 하였다.

정기신(精氣神)은 인체생명의 삼보(三寶)로서, 인체에서 가장 귀한 선천진기(先天眞氣)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6. 형(形)과 신(神)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정신적인 요소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중요시하여 형(形)과 정신, 정신과 오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한의학 입상에 응용하고 있다. 형(形)이란 인체 생리기능의 외적인 표현이며 신(神)이란 정신활동의 외적인 표현으로 형체가 건강하면 정신활동이 왕성하게 된다. 신(神)은 정신활동을 주관하며 오장육부에 각각 배속되어 ‘원신지부(元神之府)인 뇌(腦)’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형체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정신활동이 발생한다. 인체의 기혈은 사람의 형체를 구성하는 기본물질로서 신(神)의 물질적 기초가 되며, 기혈은 장부의 기능에 의해 생성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신(神)은 형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장개빈(張介賓)은 그의 저서 「장씨 유경(張氏類經)」에서 “신(神)은 비록 정기(精氣)로부터 생기지만, 정기(精氣)를 통솔하고 운용하는 것은 또한 마음에 있는 신(神)이다”(24)고 하여 형(形)과 신(神)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하고, “형자신지질(形者神之質), 신자형지용(神者形之用), 무형즉신무이생(無形則神無以生), 무신즉형불가활(無神則形不可活)”(25)이라 하여 인체 생명의 특징상 신(神)은 형(形)에서 이탈할 수 없는 합일체(合一體)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靈樞』 「天年」(26)에서는 “得神者生하고 失神者死라”고 하여 생사에서 신(神)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형(形)과 신(神)의 관계는 육체와 정신의 관계로서, 형(形)은 신(神)이 머무는 곳이고, 신(神)은 형(形)을 주관하니 형과 신은 상호 의존하여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따라서 인체를 형(形)과

신(神)의 관계로 볼 때 몸과 마음이 합쳐진 것이 생명이고,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며,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생리적 또는 생화학적 역할, 에너지대사, 그리고 열역학적 현상 등은 모두 몸과 마음의 합쳐진 상태에서 기의 조화로 나타나는 생명현상인 것이다.

인체를 음양(陰陽)으로 양분(兩分)하면 정신과 육신이 된다. 정신은 양이고 육신은 음이며, 정신과 육신을 또 다시 음양으로 양분하면 정신은 정(精)과 신(神)으로, 육신은 기(氣)와 혈(血)로 나뉘며, 이로써 정·신·기·혈(精神氣血)이라는 기본 개념이 성립되니, 이를 사람의 기본 구성요소(構成要素)(27)라 하고, 이 중에서 특히 기(氣)는 인(人)의 기본이라 한다.

사람의 혈(血)·기(氣)·정(精)·신(神)은 생명을 봉양해서 생명체를 두루 온전하게 한다.(28)

인체의 정신과 육신을 구성하는 주된 물질을 정(精)·신(神)·기(氣)·혈(血)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봉양하는 것이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라 하였다. 이 중 혈(血)과 정(精)은 유형(有形)으로 형질(形質)이 있으니 음(陰)에 속하고, 기(氣)와 신(神)은 무형(無形)이 양(陽)에 속한다. 기능적 특징으로 보면 혈(血)과 정(精)은 기관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식기능에 관여하며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재료가 되는 것이고, 기(氣)는 생명물질의 재료인 정(精)과 혈(血)을 운행하는 동력이고, 신(神)은 생명활동을 총괄하는 주재자가 된다.

인체의 정신활동과 형체는 상호작용한다. 즉 정신활동은 인체의 기혈과 장부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素問』 「天元紀大論」에서는 “인체의 오장은 오기(五氣)를 화생하는데, 이로부터 노(怒)·희(喜)·사(思)·우(憂)·공(恐)의 정지변화가 생긴다.”(29)고 하였다.

『素問』 「舉痛論」에서는 “화를 잘 내면 기가 치솟고, 기빠하면 기가 느슨해지며, 슬퍼하면 기가 소모되고,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으며, 추워지면 기가 수렴되고, 더워지면 기가 누설되며, 놀라면 기가 문란해지고, 사려가 과도하면 기(氣)가 울결된다.”(30)고 하였고, 『素問』 「陰陽應象大論」(31)에는 “분노는 간을 손상하고(過怒傷肝), 기쁨은 심을 손상하며(過喜傷心), 생각은 비를

(23) 羅仙, 『活人心法』, “精者神之本 氣者神之主 形者神之宅也 故神太用則斃 精太用則竭 氣太勞則絕 是以人之生者神也 形之托者氣也 若氣衰則形耗 而欲 長生者未之聞也 夫有者因無而生焉 形者須神而立焉 有者無之館 形者神之宅也”

(24) 張介賓, 『張氏類經』, 「攝生類」, “雖神由精氣而生, 然所以統馭精氣而爲運用之主者, 則又在吾心之神.” 장개빈(張介賓): 명대(明代)의 저명(著名)의가(名家), 자(字)는 경악(景岳), 『소문(素問)』 『영추(靈樞)』에 대한 연구가 깊어 전후 30년에 걸쳐 『유경(類經)』을 편성하였다. 『유경(類經)』은 유(類)로 분문(分門)하고 주석을 상세히 가하여, 조리가 정연하여 찾아보고 학습하기에 편리하다.

(25) 『類經』 19卷, 「鍼刺類」, 서울: 成輔社, 1982: 895.

(26) 위의 책 「天年」 第五十四: 1004-6.

(27) 전국한외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鍼灸學 上, 서울, 集文堂, 1998: 37.

(28) 『靈樞』 「本藏」,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于性命者也”

(29) 『素問』 「天元紀大論」, “天有五行 御五位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思憂恐”

(30) 『素問』 「舉痛論」, “百病生於氣也,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炅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31) 『素問』 「陰陽應象大論」, “過怒傷肝, 過喜傷心, 過思傷脾, 過憂傷肺, 過恐傷腎”

손상하고(過思傷脾), 근심은 폐를 손상하며(過憂傷肺), 두려움은 신을 손상한다(過恐傷腎)”고 하였다.

7. 장부(臟腑)는 인체생명을 대표한다

장부(臟腑)⁽³²⁾란 오장육부(五臟六腑)를 의미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臟)과 부(腑)는 장부의 기능상 특징을 근거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오장(五臟)은 인체에서 흉골(胸骨)체 안에 보호되어 있으면서, 기능상 저장(貯藏)을 위주로 하여 정(精)·혈(血)·진액(津液)을 저장한다. 오장에 저장되는 정기(精氣)는 인체 기능 활동의 근본이 된다. 장(臟)은 사람이 생명(生命)이 있는 동안 쉬지 않고 작용한다고 하며, 그 기능은 ‘장이불사(藏而不瀉)’라 하여 “오장(五臟)이란 정기를 저장하지만 배설하지 않으므로 충만하기는 하나 견실하게 될 수 없다”고 한다.

육부(六腑)는 인체에서 음식물의 소화(消化)·흡수(吸收)·전도(傳導)·배설(排泄)을 주관한다. 음식물이 위(胃)에 들어가면 위(胃)는 실하고, 장(腸)으로 들어가면 위(胃)는 공허하므로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충만하면 소화(消化) 전도(傳導)를 하지 못한다. 부(腑)는 필요에 따라 노작(勞作)한다고 하며, 그 기능은 ‘사이부장(瀉而不藏)’이라 하여 “육부(六腑)란 배설하지만 저장할 수 없으므로 견실하되 충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부는 장과 부로 귀속되고 구분되어 장부가 각각 하는 임무는 다르지만, 서로 음양(陰陽)으로 상대되어 생리 또는 병리분야에서 모두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장부개념은 서양의학의 장부개념과 매우 달라서, 오장육부는 인체생명을 대표하는 기능적 시스템으로, 장부 상호작용을 통해 인체생명이 유지되는 인체의 생리기능과 전신의 병리현상까지도 반영한다. 오장육부 중의 오장은 간·심·비·폐·신(肝心脾肺腎)의 실질장기를 말하며, 인체의 음(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고, 육부는 담낭·소장·위장·대장·방광·삼초로 구성되며, 양(陽)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장과 부는 해당 장부의 생리기능과 병리현상 뿐 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음양동정(陰陽動靜)의 상호 협력관계로 존재하여, 각 장(臟)과 부(腑)사이, 장부와 체표의 경락사이 및 장부와 오관신색(五官神色)사이에서 끊임없이 연계되어 있으며,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가지고 상생과 제약을 한다. 장부(臟腑)는 천인합일사상과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사람의 정신작용을 주관한다.

(32) 원광대학교 한국전통의학 연구소. 한의학 개설. 서울 : 영림사. 1997 : 50-82.

8. 경락은 인체의 생명현상이다

경락(經絡)은 경맥과 락맥의 총칭으로 한의학 이론의 근거를 이루는 인체의 생명현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중요 시스템이다. 인체를 형신분리(形神分離)의 관계에서 구조와 기능으로 볼 때, 구조는 형과 기능은 신과 상응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되어 있는 것. 단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된다는 것만이 절대적이라 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성질은 음과 양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어떠한 사물의 내부에도 음과 양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이치라 설명한다.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설에서는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동(太極動)이 생양(生陽)하고 태극정(太極靜)이 생음(生陰)이라’ 하여 태극과 음양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우리의 인체를 보면 해부학적이며 눈으로 보이는 구조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그 구조가 가지는 성질 또는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기능적인 것이라 하는데, 이를 경락이라 한다. 인체의 경락 또한 상대 되고 천지의 기운 따라 縱橫으로 작용하여 인체 생명을 상하 좌우로 균형과 조화를 통해 유지 관리한다.

경락은 체내에 있는 오장육부의 체표 반응로선으로, 『靈樞』 「本藏」(33)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 “經脈은 血氣를 운행하기 때문에 陰陽을 운영하고, 筋骨을 부드럽게 하여, 關節의 운동을 순조롭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경락의 경(經)은 길(道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락계통 중에서 큰 것이고 인체를 상하로 주행하는 주요한 간선(幹線)이다. 낙(絡)에는 망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연락의 뜻이 있다. 상하로 통하는 주요 경락 중에서 옆으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분지로서 전신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낙맥이라고 한다. 비교적 전신의 말단이나 얇은 부위를 순행한다. 인체의 신경과 혈관, 내분비 기능을 총괄한다.

이러한 경락은 인체 생명의 生理상 氣血의 운행·통과·연락하는 통로이며, 病理上 질병의 傳導통로이며, 治療上 약물의 성능을 발휘하는 기계 등의 자극을 감수하는 통로라 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한의학의 주체가 되는 생명을 한의학 역대 문헌을 통한 생명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었다.

(33) 『靈樞』 「本藏」. 서울 : 의성당. 2002 : 886 “經脈者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생명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그것이 하나의 생명임에 다름이 있을 수 없듯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은 하나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다.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은 서로 관점의 차이일 뿐 생명이 다르지 않음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의학이 동서의학으로 분야를 달리하여 발달되어 오다가 서구를 중심으로 보완대체의학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었고, 근래에 통합의학이 태동하고 있다.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의학의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통합의학은 기존의 보완대체의학을 넘어서 환자중심을 지향하면서 환자중심, 치료중심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열려있는 과학적 근거를 수용하며 발달되고 있다. 통합의학은 인체의 생명을 대상으로 환자중심의 의학은 모두가 하나의학이라는 선언적 의미이다. 원불교의 3대 종법사를 역임하신 대신종사는 동서의학의 협력을 넘어서 진리에 바탕한 일원의학을 천명한바 있다.

남녀가 성장하여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가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키워가듯이 의학이 동서의학으로 발달되어져왔으나, 이제 산업사회도 지나서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는 심신의 온전한 건강이 중요한 것인 만큼, 이처럼 열린 시대에는 서로 협력하여 환자중심 치료중심으로 인류건강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 통합의학의 본의일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여도 의식이 열리지 않으면 환자중심의 통합의학 본의 실현에 접근이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일찍이 한의학은 도(道)에 바탕한 환자중심의 치료의학이었던 바, 다시 한 번 한의학의 인체관, 생명관을 새기면서 우주와 인체를 하나로 꿰뚫는 실력 갖춘 한학도들이 많이 출현하여 그 본지 실현에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간의 협력이 병행되어져야 인류의 심신간 건강기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NRF-2010-361-A00008).

참고문헌

1. Kang MH. A Study on the Compilation Background "Sinmyeol-ron(神滅論)" of Beomjin(范縝). Kyoung-Ju Historical Journal (慶州史學). 2008 ; 27 : 137-66.
2. Kim DH. Supplementary note. Yellow Empero's Canon Internal Medicine. Spiritual Pivot(靈樞). Seoul : Euseong-dang Publishing Co. 2002.
3. Sohn IC. Study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View of Life.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2010 ; 45 : 119-62.
4. Li DY. Treatise on the spleen and stomach.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2005.
5. Xun Z. XunZi. Seoul : Eulyoo Publishing Co. 2002.
6. Ahn KS. Korean Medicine & Life. Science, Philosophy and Culture. 2001 ; 36 : 72-86.
7. Yang SS. Grand Simplicity of Inner Canon of Huangdi. Beijing : Scientific and Technical Documentation Press. 2005.
8. Yang WJ compiled. Yellow Emperor decipher Plain Questions. Seoul : Seongbo Publishers. 1980.
9. Yang WJ compiled. Yellow Emperor decipher spiritual pivot. Seoul : Seongbo Publishers. 1980.
10. The Book of Rites(禮記) (Classical photocopying, The Four Books and the Five Classics). Seoul : Kyungmoon Publishers. 1979.
11. Liu ZL. Methods of Neijing the philosophy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eijing : Science Press. 1982.
12. 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Wonkwang University. An Introduction of Korean Medicine. Seoul : YoungRim Publishing Co. 1997.
13. Li ZZ. Essential readings for medical professionals. Beijing :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4.
14. Zhang JB. Lei Jing(Classified Canon). Acupuncture classes. Seoul : Seongbo Publishers. 1982.
15. Zhang JB. Lei Jing(Classified Canon) the commentary. XiAn : Shaanxi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6.
16. Zhang JB. Jingyue Encyclopedia. Seoul : JeongDam Publishing Co. 1999.
17.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Dept. Acupuncture & Moxibustion, Dept. Meridian & Acupoint in Korean Medical College.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eoul : Jipmoon Publishing Co. 1998.

1. Kang MH. A Study on the Compilation Background "Sinmyeol-